영혼과 몸인가? 영과 혼과 몸인가?

(살전5:23~28)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혼과 몸인가? 영과 혼과 몸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혼과 몸인가, 영과 혼과 몸인가?
다시 말하면 이분설의 인간인가, 3분설의 인간인가? 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계의 나이 많으신 어른 목사님 두 분이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다.
독일을 지나시는 중에 동독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가 있던 괴팅엔이 동독과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게 들르셔서 집에까지 오셨는데 식사를 다 하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멀리 밖으로 나왔으니까 눈치 볼 것 없이 솔직히 노골적으로 한 번 물어보자! 이 영혼육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죽으면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또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설교하기를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장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요소,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종말론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다는 얘깁니다, 이때는 이 얘기 하고 저때는 저 얘기하고.

그런데 이분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교단에서 아주 큰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두 분 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교회사 속에서, 인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3분설과 2분설이에요.
몸과 혼과 영으로 돼있다고 하는 3분설의 가장 두드러진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에 근거되어 있고, 오늘 본문 23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구절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확고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영이라고 하는 말이 '프뉴마'고 혼이라는 말이 '프쉬케'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렇게 구분이 뚜렷하지 않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2분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혼은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말씀하시고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2분설로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곤란한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축자영감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자 한 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쓰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려면 동일하게 글자대로 영감을 주셨던 똑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축자영감설이라고 해서 문자를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만남의 사건이라는 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문자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축자영감 되어졌지만 축자영감 하시던 그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당신이 축자영감 하셨던 그 문자들을 해석해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자영감설을 믿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도바울을 통해서 몸과 혼과 영이라고 말씀

하실 때도 성령이 감동하신 것이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영과 혼이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서로 상이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왜 이렇게 제시되어야 됐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렇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인간의 구성요소가 주제인 말씀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이고, 오늘 본문도 사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돼있다는 게 주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환란과 고난이 많고 지금까지 잘 고난을 잘 이겨왔는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들이 주님 앞에 선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전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이 주제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타당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축자영감 하셔서 몸과 혼과 영이라는 말씀을 두 군데에서 명확하게 하시고, 대부분의 다른 부분에서는 영과 혼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성령님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혼용하기도 하고 뚜렷하게 3개로 구분하기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2분설과 3분설 중의 어느 것 하나를 절대시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2분설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3분설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다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왜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부터 한 번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서도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마치 무슨 과학자들이 화학성분 분석하듯이 그렇게 인간의 구성요소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간의 구성요소가 주제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고 물질세계인 이 세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실존적 위상이 바로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가?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계해야 되는 인격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몸이냐, 혼이냐, 영이냐, 이것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위임명령도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관계하는 아담의 위치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이 세계 사이에서 위치하면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대해 관계해야 되는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주된 포인트라는 얘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대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이겁니다.
관계할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관계합니까?
타락하기 전 상태의 관계방식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인격이 된 이 아담은 육체를 통해서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관계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관계합니다.
혹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죄를 지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복음으로 죄 사함을 이룬 다음이 아니냐고.
아니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셔서 새로운 다른 모습의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본래 생각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본래의 모습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하는 인간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관계하는 인간입니다.
육체의 감각이 없으면 우리 인격,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체의 5감관이 있어야 이 땅 위의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이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셨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격체로 지음 받은 인간이 육체 안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감각이 돼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육체가 감각기관이 되어 세상을 느끼고 관계할 수 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감각기관이 돼주심으로써만 우린 관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의 가능성이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인격이 있고 세상 쪽으로 육체가 있고 육체를 통해 세상을 관계하고, 하늘나라 쪽으로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하늘나라를 관계합니다.
하나님도 관계하고 세상도 관계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얘기에요.

먼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합니다.
흙으로 만들어놓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입김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하는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아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아담의 육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담의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담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아담의 인격,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관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가 머물고 있는 세상일에 대해 뜻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담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인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노아홍수 내용을 읽

다보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들에게서 떠나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통해 세상에 대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그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주님께서 오셔서 극복해나가시는데, 자! 이제 한 번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성을 억눌러 주는 거예요.
죄성이 뭐냐 하면 자꾸 우리의 인격이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에 먼저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마음이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육체를 따라 세상에 반응하려는 이 죄성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니까 여전히 십자가에서 이 죄성을 누르고 죽을 때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때 우리 인격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여자에게 다 모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앞에 있을 때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여자의 인격 안에 어머니로서의 성질이 생겨납니다, 부성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내 인격 안에 인간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성질이 사회성입니다.
사람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피아노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백건우 씨와 내가 피아노를 앞에 두고 같이 있어요.
피아노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관계할 수 있는 성질이 내 인격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건우 씨는 피아노에 대해 잘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이 그 인격 안에 존재합니다.
좀 억지 같습니다만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피아노성(性)'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피아노성이 제로에요, 내 인격 안에는 피아노와 관계할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건우 씨 안에는 똑같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피아노에 대해 반응하고 피아노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성질, 피아노성이 아주 탁월하게 존재합니다.
김연아도 마찬가지에요.
피겨스케이트가 있고 빙판이 있어도, 내 인격 안에 피겨스케이팅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트와 빙판만 있으면 완전히 딴 인간이 돼버릴 정도로 그 인격 안에 피겨스케이팅 성(性)이 들어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성이 들어있는 김연아 선수와 피겨스케이팅 성이 제로인 나 자신을 비교해보세요.
그러니 피겨스케이트를 신고 잘 반응할 피겨스케이팅 성은 물질은 아니지만 실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김연아라는 인격 안에.

마찬가지에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에 대해 백건우 씨가 잘 반응하듯이 피겨스케이팅에 대해 김연아 선수가 잘 반응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피아노를 대하는 것처럼, 제가 피겨스케이트를 대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아무런 성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 제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다윗을 쫓던 사울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굴 안에 들어와서 눈의 조리개가 적응된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울을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숨어있던 다윗의 추종자들이 지금이 기회니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원수가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등을 돌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이 있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인간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때 다윗의 인격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먼저.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실체로서 다윗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경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뚜렷이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영과 혼의 구분이 없이 영혼과 몸의 2분설처럼 사용하시기도 하는가?
당연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격이, 우리 인격이 혼이에요, 그 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 인격이 프뉴마, 영이 프뉴마거든요? 프뉴마틱 한 성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 자체를 빼내서 얘기하자면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이 죽었다, 영성이 죽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를 보면, 사춘기로 한참 자기 신체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 아닙니까?
철봉 사 달라, 악력계 사 달라, 말이 많아요.
맨날 자기 팔의 알통을 주무르면서 확인하고 제 알통과 비교를 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이 인격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영성 제로인 사람이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로 바뀐다는 얘기에요.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스케이팅을 할 때 보면, 그 빙판은 피겨스케이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연기가 끝나고 나면 관중들이 꽃을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꽃을 주워가는 꿈나무 피겨스케이터들조차도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이 인격 안에 형성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못 가지요.
피겨스케이팅 못 하는 사람이 빙판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교인 중에 영성 제로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라이브 연결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앞에 있으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백건우 씨처럼, 어떤 삶의 상황이 주어져도, 아무리 급한 돈 문제, 아무리 급한 건강 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가 주어져도 언제나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백건우 씨가 피아노를 대하듯이 그렇게 잘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돈 문제에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집니다.
이건 어떤 것과 같은 거냐 하면,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나는 끊어진 줄 모르고 계속 혼자 얘기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먼저 반응함으로써 세상문제에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성질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평생 믿으면 영성 제로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김연아 선수에게 있어서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성질, 그걸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인격 안에 있어요, 그 인격을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 안에 들어있는 피겨스케이팅 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육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에요.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잘 관계할 수 있는 영성이 영으로써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영성으로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축자영감을 하시는 과정 중에, 영혼과 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관심보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며 관계할 것이냐에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이 풍성한 인격체가 됨으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속속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